

# 그리스도인 생활 공동체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12월 2025년 뉴스 레터



이번 12월 뉴스레터는 가을 피정, 지역 모임, 기쁨 가득한 축하 행사, 그리고 다가오는 공현 대축일 행사까지 CLC의 활기찬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소식으로는 모리스타운에서 열린 이냐시오 영성 피정, 동중부 지역 가을 모임, 그리고 희망과 사명으로 가득 찬 사우스 플로리다 지역 총회가 있습니다. 휠링 대학교에서 평생 봉사를 인정받은 Jim O'Brien 예수회 신부님께 경의를 표하며, Elaine 가족에게 Alba Leonor의 탄생을 축하드리며 기쁨을 전합니다. 이냐시오 영성 센터에서 드린 미사에서는 감사의 마음이 유난히 빛났고, 특별한 성육신 강생 프로그램을 통해 성탄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가올 행사로는 Dave Godleski 예수회 신부님과 함께하는 주님 공현 대축일 미사와 의식 성찰, 그리고 신앙, 봉사, 공동체라는 공동의 사명을 더욱 깊이 있게 다져나갈 수 있는 기회들을 기대합니다.

### 이 뉴스레터에서 다루는 내용:

↓ 지역, 국가 행사들과 사도적 소식, 단체별 행사 관련 기사들

# 다가오는 행사들



## 세계화와 빈곤 팀

🙏 매월 온라인 기도 모임을 갖습니다. 프론티어의 주제인 평화, 인간 존엄성, 인종, 이주 및 빈곤을 중심으로 함께 기도하고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간략하게 나누겠습니다.

12월

15

8:00 PM ET



## 대림의 밤

떼제 양식의 찬미와 경배를 통해 기도, 음악, 그리고 진지하면서도 간단한 대화로 대림절의 주제를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 Ignis Ministries 주최

12월

18

2025  
9:00 PM ET



## 주님 공현 대축일 미사

1월 3일 토요일, 특별한 주님 공현 대축일 미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미사는 워싱턴 D.C.에서 우리 CLC 지도 신부님 (EA)이신 Dave Godleski 예수회 신부님의 집전으로 거행됩니다. 이번 행사는 패밀리 프론티어 팀에서 주최합니다.

1월

3

2026

# 공동체 운영비에 관한 안내

CLC 회원 여러분께,

금년도 회비를 아직 내지 않으신 회원들께서는 각 지역 대표에게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금년도 회비의 약 80%가 접수되었으며, 우리 공동체의 사도직과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모든 회원의 100% 참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 NCC 대표자에게 드리는 협조 요청

NCC 대표자분들께서는 각 지역 공동체에 회비에 대한 안내와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의 사명을 함께 지탱해 주시는 모든 회원 여러분의 헌신과 너그러움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세계화 & 빈곤 팀

## 월례 온라인 기도 모임

매달 한 번, 30분간 전국 단위 온라인 기도 시간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하며, CLC의 프론티어 주제인 평화, 인간의 존엄성, 인종, 이주, 가난을 중심으로 각자의 마음에 담긴 이야기를 간단히 나눕니다.

일시: 매월 셋째 주 월요일 오후 8시 (미 동부 시간)

다음 모임: 2025년 12월 15일(월)

☞ 줌 링크: [clc-usa.com/globalization-poverty](https://clc-usa.com/globalization-poverty)에 게시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 전국 지원 프로젝트: The Samaritan.City

주거 불안 상태에 놓인 형제 자매들을 섬기기 위한 초대입니다. 이 단순하지만 힘 있는 사도직은 노숙의 어려움에 직면한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존엄을 확인하며,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더 알아보기: 설립자 이야기 영상 시청

참여를 원하시는 분: Murray Dalziel (동중부 지역, 볼티모어) ✉ [murray.dalziel@gmail.com](mailto:murray.dalziel@gmail.com)

## 지역 NCC 회원 여러분께

이 사도직의 기회를 널리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어 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CLC 세계화와 빈곤 프론티어  
공동체 온라인 기도 모임  
매월 셋째 주 월요일

오후 8:00 – 8:30 (미 동부 시간)

줌 모임 ID: 813 7101 3736

비밀번호: 856864

# 주님 공현 대축일 미사와 의식 성찰

1월 3일 토요일 저녁, CLC-USA 주님 공현 대축일 미사 및 프로그램에 여러분을 정중히 초대합니다.

## ✦ 행사 안내

- ◆ 집전: Dave Godleski 예수회 신부님
- ◆ 프로그램: 미사 후 의식성찰에 대한 짧은 프로그램
- ◆ 장소: 워싱턴 DC (대면 참석 가능)
- ◆ 온라인 참여: 모든 회원은 줌을 통해 참여 가능
- ◆ 주관: 가족 프론티어 (The Family Frontier)

이번 모임은 주님 공현 대축일을 함께 기념하며, 의식성찰을 통해 이냐시오 영성을 더욱 깊이 실천하는 거룩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 추가 안내는 추후 공지드리겠습니다.



# KCLC 뉴욕: 이냐시오 침묵 피정 성찰

10월 1일부터 5일까지, 회원들과 피정자들은 뉴저지 모리스타운에 위치한 로올라 피정센터에 모여 이냐시오 영성에 기반한 침묵 피정을 하였습니다. 피정 주제 "오늘날의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는 참가자들에게 깊은 영적 성찰과 깊은 내적 쇠신을 경험하도록 이끌었습니다.

## ✦ 피정 하이라이트

- 참가자: 회원 및 비회원 포함 24명
- 영적 지도: 남정수 토마스 아퀴나스 예수회 신부/ 보스톤 칼리지 재학 중
- 진행 방식: 영신수련을 바탕으로 한 침묵 피정

## 📖 강의 주제

피정은 다음과 같은 영적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무질서한 애착 내려놓기
- 인간의 근원적 실존
- 일상 속에서의 거룩함
- 예수님의 수난
- 부활의 의미

각 주제는 하느님의 현존과 영신수련의 구조안에서 자신의 삶을 깊이 성찰 해 보는 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 🙏 파견 미사

마지막 날, 참가자들은 제단을 중심으로 둘러 서서, 손을 맞잡고, 주님의 기도를 바친 뒤 성체를 나누며 피정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주님의 눈길 안에 머물며 마음을 다해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수영, 체리힐 한인 성당*





# 동중부 가을 지역 모임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동중부 지역 CLC 회원들이 메릴랜드 주 아담스빌에 있는 클라켓 센터에 모여 연례 가을 지역 모임을 가졌습니다.

## 주 제

성령을 느끼기: 우리의 연결을 깊게 하기

올해의 모임은 은혜롭고 기쁨이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공동기도, 성찰, 친교를 통해 우리는 우리 가운데 움직이시는 성령의 활동에 마음을 열었고, 유대감과 공동체적 식별의 감각을 깊게 했습니다.

이 주말에 우리는 삶과 공동체 안에 계시는 성령의 현존에 경청하고, 성장하며, 기념하는 거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 동중부(MAR): 힐링 대학교, JIM O'BRIEN 신부를 기리다

Jim O'Brien 신부님의 선한 영향력이 CLC 공동체의 울타리를 넘어, 신부님의 사목과 가르침, 그리고 봉사를 통해 수많은 이들의 삶에 깊이 다가갔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힐링 대학교는 신부님께서 수십 년간 교육과 신앙, 그리고 지역 사회 활동에 바치신 헌신에 대한 헌사로, 신부님의 이름을 딴 봉사 센터(Center for Service)를 헌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기림은 자비와 지혜, 그리고 정의를 향한 헌신으로 수많은 세대의 학생과 동료들에게 영감을 준 예수회 사제 Jim 신부님의 영원한 영적 유산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 헌정식 주요 내용

- ◆ 평생의 봉사: Jim 신부님의 사목과 가르침은 힐링 대학교의 수많은 학생들의 영적, 학문적 삶을 형성했습니다.
- ◆ 봉사 센터: 새로이 명명된 이 센터는 행동하는 신앙에 대한 신부님의 비전을 담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사랑과 목적의식을 가지고 봉사하도록 독려합니다.
- ◆ 공동체 영향력: 신부님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외부로 퍼져나가며, 식별, 봉사, 그리고 희망이라는 이냐시오 영성의 가치들이 오늘날 세상에서도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 왜 CLC에 중요한가

Jim 신부님의 이번 기림은 힐링 대학교에서의 사목 활동을 기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관상가로서 희망과 신앙을 가지고 타인을 섬기는 CLC의 공동 사명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신부님의 모범은 이냐시오 영성에 뿌리를 둔 공동체를 계속해서 건설해 나가려는 우리의 의지를 굳건하게 합니다.

■ 전체 공지 내용은 힐링 대학교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사우스 플로리다 지역 모임 1 부

10월 18일 토요일, 사우스 플로리다 지역의 CLC 회원 45명이 마이애미에 위치한 이냐시오 영성 센터에 모였습니다. 특별 손님으로는 CLC 이전 그룹의 회원 세 분과 로올라 초등학교 교장인 청년 리더 한 분이 함께했습니다.



## 희망과 일치의 메세지

- ◆ 세계 CLC 의장인 Chris Micallef는 따뜻한 격려와 사랑, 희망, 그리고 기도로 가득 찬 진심 어린 영상 메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 ◆ CLC-USA의 집행 위원회 역시 마음을 밝히고 기쁨과 새로운 일치감을 가져다주는 영상 메세지를 공유했습니다.



## 공동체 사명

- ◆ 각 지역 공동체는 자신들의 사명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회원들은 전자 장비 및 부품 수거의 날(Electronic Equipment and Parts Collection Day) 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폐기된 전자 제품의 안전한 재활용과 처분을 도왔습니다.





# 사우스 플로리다 지역 모임 2 부

## 🌟 활동과 성찰들

- ◆ 팝퀴즈와 상품
- ◆ 몸으로 하는 기도
- ◆ Jose de Pable로부터 온 CLC와 희망 그리고 사명에 관한 비디오
- ◆ 세 가지 질문으로 이루어진 소그룹 영적 대화
  - 특히 불확실하고 어려운 사명에서 희망이 우리를 지탱해 준 곳은 어디입니까?
  - 오늘날 우리는 CLC 공동체 회원으로서 이냐시오 영성과 희망의 희년 순례자들을 통해 상처 받은 세상에서 선교에 대한 구체적인 부름을 어떻게 식별할 수 있습니까?
  -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떤 희망의 징후를 발견하며, 매일의 사명에서 그 희망을 어떻게 증언할 수 있습니까?

## 🙏 파견 미사

지역 지도자이신 Marcelino Garcia 예수회 신부님께서 집전하신 미사로 이 집회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회원들이 진심어린 희망을 증언을 하였는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습니다:

- ◆ 무언가에 속해 있다는 느낌은 우리의 희망을 새롭게 합니다
- ◆ 봉사를 해야겠다는 열망
- ◆ 한 불씨가 다른 불씨를 일으킵니다.
- ◆ 우리 공동체를 위한 열린 가능성
- ◆ 봉사 안에서의 희망
- ◆ 공동체는 우리의 신앙 생활에 도움을 줍니다.
- ◆ 공동체가 없다면 교회도 없습니다
- ◆ 우리가 삼위일체의 반영입니다.
- ◆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희망을 찾습니다.
- ◆ 희망이 없으면 사명이 없고, 사명이 없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 🌴 사우스 플로리다 지역 환희, 감사, 그리고 성찰



## 환희

우리 공동체의 아름다운 이정표를 기쁜 마음으로 축하합니다: 국내외 청년 CLC 그룹의 소중한 회원인 **Elaine**의 첫 아기 **Alba Leonor**가 11 월 3 일 탄생하였습니다. 우리는 Elaine과 하느님의 은총으로 그녀에게 온 아기의 특별한 여정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 감사

11 월 19 일 수요일, 이나시오 영성 센터에서 CLC 회원들이 추수 감사절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숲속 쉼터 아래에서, 지역 지도자이신 **Marcelino García** 예수회 신부님과 센터장인 **Jorge Rojas** 예수회 신부님의 공동 집전으로 하느님의 은총 속에, 공동체적 일치와 영적 온기가 넘치는 가슴벅찬 미사를 드렸습니다.





# 사우스 플로리다 지역 소식: 기쁨, 감사, 그리고 성찰

## 성찰

12월 1일 오후 7시 30분 (동부시간), 우리 공동체는 성탄 시기를 준비하며 스페인어 줌을 통해 하느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신비에 대한 특별한 성찰 모임을 가졌습니다.

친밀함과 관상의 영적 분위기 안에서, 회원들은 이 거룩한 시기의 참된 의미를 되돌아보기 위해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는 **David Pantaleon** 예수회 신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으며, 신부님의 존재와 영적 지도는 모임을 더욱 풍요롭게 해주었습니다.

이 성찰의 시간은 우리의 일치감을 더욱 깊게 해 주었으며, 대림 시기를 새로워진 믿음과 감사의 마음으로 맞이하도록 준비시켜 주었습니다.



# ✊ 정의를 위한 이냐시오 가족 모임 (Ignatian Family Teach-In for Justice)

여러 Ignis 회원들과 보스톤 청년들은 워싱턴 D. C.로 함께 이동하여 정의를 위한 이냐시오 가족모임(IFTJ)에 참여했습니다.

## John Tran 목상 나눔

John Tran은 어떻게 이 주말이 예상치 못한 변화를 가져온 여정이 되었는지 나누었습니다. 호기심과 불확실함을 가지고 도착했지만, 그는 곧 다양한 만남과 이야기 속에서 깊이 감동받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 ◆ 엘살바도르에서 온 증언들과 Greg Boyle 신부님의 “사람이 변할 때, 세상도 변한다(systems change when people change)”는 메시지는 그에게 새로운 인식을 심어 주었습니다.
- ◆ 기조 연설, 대화, 고요함의 순간들 -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회의 장소를 오가는 걸음 속에서, 생태적 회심에 대한 부르심 속에서, 부드러움과 돌봄을 필요로 하는 이야기 속에서 희망이 어떻게 만남을 통해 태어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 ◆ 일요일 밤이 되었을때, 처음의 불확실함은 감사, 경이, 그리고 정의를 위한 활동을 가까이하려는 새로운 열망으로 바뀌었습니다.

## 옹호의 날 (Advocacy D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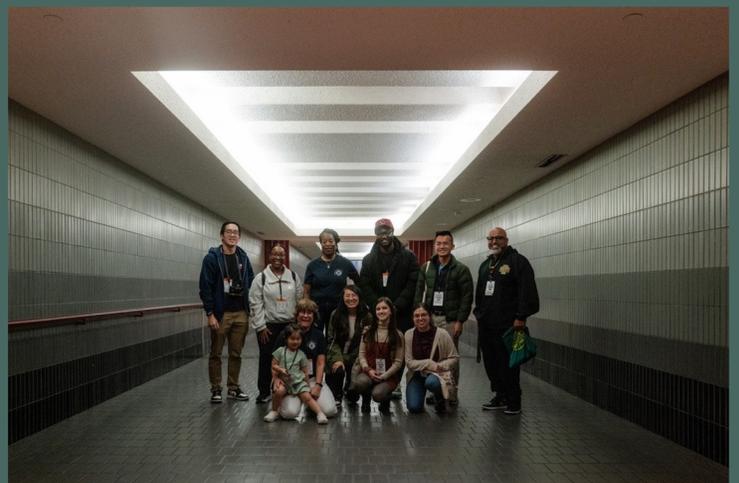
월요일, John은 유니언 스퀘어에 모인 수백 명과 함께 옹호의 날에 참여했습니다. 비록 직접 의회 사무실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그는 자신이 하느님께서 이루시는 더 큰 움직임의 일원(공동의 증언의 일부)임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는 옹호 활동이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성찰 했습니다. 그것은 또한:

- ◆ 작은 공동체 안에서의 연민
- ◆ 존엄과 연대를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
- ◆ 이야기와 이미지를 통하여 사회 인식을 확산시키는 것

## 마무리 성찰

John은 IFTJ를 떠나며 겸손, 희망, 그리고 새로운 소명감을 느꼈고 - 하느님께서 부르시는 자리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의도적이고 성실하게 더 나아가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 ✨ IGNIS 청년 사도직 팀의 대림시기 묵상 및 찬양

올해 대림 시기에도 Ignis 청년 사도직팀에서는 매년 이어지는 대림 묵상 시리즈를 마련하였습니다. 청년들과 또한 그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이들이 모여, 이번 대림의 주제가 자신의 삶과 신앙 안에서 어떻게 울리고 있는지 나누는 시간입니다. 각자의 일상 속에서 하느님의 부르심과 내적 움직임을 식별해 나가는 여정이 담겨 있습니다.

## 📖 묵상 시리즈

- ◆ 전체 묵상 자료: [Ignis Ministries Advent 2025](#)
- ◆ 주간 묵상 자료 하이라이트와 소식을 보려면:
  - Instagram: [@ignis.ministries](#)
  - Facebook: [YA Ignis Ministries](#)

## 🎵 Advent Worship Night 대림 찬양의 밤

대림 찬양의 밤을 위해 아래 날짜를 기억 해 주십시오:

- ◆ 날짜 : 12월 18일 목요일
- ◆ 시간: 6 PM PT | 8 PM CT | 9 PM ET
- ◆ 주제 : 빛나도록 부르심받다: *빛의 세대를 위한 대림*  
(Called to Shine: Advent for a Generation of Light)

조용하고 관상적인 분위기의 떼제(Taizé) 스타일 찬양과 기도, 말씀, 그리고 짧은 나눔으로 이루어진 이 밤은, 우리 각자가 "하느님께서 오시기를 바라시는 자리"를 다시 발견하도록 초대합니다. 대림의 여정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머무실 자리—우리 마음의 마구간—을 준비하도록 함께 기도와 노래 속에서 머물러 봅시다.



# 대림절 기도

Pastor Steve from Unfolding Light

주님, 회개란  
힘겨운 노력을 쌓아 올리는 일이 아니라  
그저 **내어 맡기고 놓아 드리**는 것임을 배웁니다.

내 안에 오래 머물던 원망을 내려놓게 하시고,  
굳게 믿어온 완고한 확신도 내려놓게 하시며,  
모든 것을 내 방식대로 이루려는 고집을  
부드럽게 풀어내어 주님께로 돌려드리게 하소서.

세상의 기대에 맞추려 애쓰는 마음도,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려는 두려움도,  
그 흐름에 맞춰 따라가야 한다는 압박도  
조용히 주님의 손에 맡겨 드립니다.

주님,  
비워 내는 이 자리,  
내려놓는 이 마음 안에  
당신의 빛이 고요히 자리 잡게 하소서.



주님,  
행복하려면 무엇인가를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고 속삭이던 그 거짓을  
이제 놓아 드립니다.  
그리고 담대히 믿어봅니다—행복은  
주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임을.

잠든 아이처럼 모든 긴장을 풀고  
내어 맡기게 하소서.  
그렇게 맡겨진 내가 사랑받고, 품에 안기고,  
어딘가 새로운 곳으로 인도되고 있음을  
깊이 알게 하소서.

주님,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온 세상과 함께)  
**다시 시작할 은총**을 당신께로부터 받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 EXCO 에서 보내는 대림 축복

대림이라는 이 거룩한 여정을 걸어가며, 내려놓음의 은총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더 깊이  
**머무실 공간**을 열어 주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내려놓는 모든 것은 주님을 향한 **신뢰의 행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침묵은 **희망으로 들어서**는 문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걸음 하나 하나가  
오늘도 세상 안에서 일하시는 **하느님 사랑의 증거**가 되게 하소서.

ExCo는 여러분을 기도와 감사로 마음 깊이 기억합니다. 함께 우리 마음을 열어 임마누엘-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을 맞이합니다. 그분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 각자를 **기쁨, 평화,**  
**자비의 빛을** 나르는 이들로 부르고 계십니다.  
아멘